

신경써 골라야 할 성교육동화

권할만한 책 한두권뿐... 부모가 먼저 읽고 사줘야

최근들어 性에 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성교육도서들이 줄이어 출간되고 있다.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들 책은 기대와는 달리 많은 수가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 비어·속어의 무분별 사용을 비롯해 왜곡된 성지식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9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성교육도서에 대한 관심은 작년 여름방학을 전후로 피크를 이뤘는데, 교보문고의 경우 주당 150~200부 정도나 팔려나갔다. 그중 「열두살의 봄」(대교)은 아동도서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최근 일부 국민학교 겨울방학과제에 성교육도서 독후감이 끼어 있기까지 해 이들 책을 찾는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서점의 어린이도서관이나 학교앞 문방구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성교육도서는 현재 20여종 정도 앞서 든 「열두살의 봄」을 비롯해 「이상한 꿈」(바른사) 「알고싶어요」(지경사) 「사춘기의 비밀일기」(민서) 「소중한 우리들」(새학습사) 「엄마 그건 비밀로 해주세요」(아동교육문화연구회) 「아기씨 꽃씨 사랑의 씨」(현암사) 등의 동화집과, 「소라의 봄」(금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민서) 「아담과 이브」(아동교육문화연구회) 등 재미있게 만화로 된 것이 있다.

이중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은 「사춘기의 비밀일기」 「열두살의 봄」 「알고싶어요」 「소라의 봄」 등 4권. 그런데

이 목록은, 뜻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교육동화들을 꼼꼼히 읽은 후 작성한 추천목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중 일치하는 것이라곤 단 한권뿐이다.

전교조 초등교과 황재숙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내 국민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56.8%) 어린이들이 성교육동화를 읽은 적이 있으며, 구입방법은 대부분(82.8%)이 친구나 학급문고에서 빌리거나 본인이 직접 사보는데,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는 17.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YWCA 어린이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설문응답자의 86.2%가 부모나 선생님께 성에 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으며, 대신 성지식의 전달을 친구나 책, 영상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이렇듯 자율적으로 선택한 성교육도서의 내용이다. 앞서 든,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4권의 책만 두고 보더라도 성교육동화라는 제목을 빙자하여 조숙한 어린이들의 연애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고리짝 미인'이라든지 '골통이 안돌아간다' 등의 비어가 예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노처녀 선생님이 걸치레에 신경쓰는 것은 소비자(남편감)의 눈에 더 비싼 값에 팔려가기 위해서이다' 등 여교사를 성상포화한 내용도 들어 있어 충격을 던진 다.

이같은 책의 해독은 어린이 자신들도 느끼고 있는 듯 쑥스럽고 창피하다. 저절이라 생각한 다, 괜히 읽었다 등 부정적인 대답이 절반(49.8



%을 차지, 도움이 되었다(34.8%)는 답을 훨씬 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읽어도 읽힐 만한 책은 20여종 중 손에 꼽을 정도이다 보니 선택은 늘 문제점을 지닌 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

「대부분의 성교육도서들이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성인의 일상담화가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실리고 있어 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내용이 많다」고 서울 YWCA 어린이부 박영숙씨는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만화를 그대로 베껴다 놓는 등 우리의 정서나 윤리에 맞지 않는 것들도 걸러지지 않은 채 소개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

일부 아쉬우나마 읽힐 만한 도서들의 경우도 신체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전하면서도 건전한 성의식을 일깨우는 데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성에 대한 것은 무조건 쉬쉬하고, 언어로 표현된 성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없는 부모세대들은 자녀들의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녀성교육의 1차 교사는 부모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임하기 전에 앞서 좋은 책을 선별해 먼저 읽고 책에서 부족한 대답을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박간사는 말한다. 시중에 범람하는 아동용 성교육도서 가운데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책은 「열두살의 봄」과 저학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꾸밈없이 그려져 있는 「아기씨 꽃씨 사랑의 씨」, 그리고 일부학교에서 과제로 내어준 「소중한 우리들」(3권) 외 한두권 정도 이밖에 학부모·교사들을 위한 지도지침서로 최근 전교조 여성국에서 펴낸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교과서」(동지) 등이 참고할 만하다.

— 정혜옥 기자

동화를 통해 민족동질성 일깨워

손동인 외 「남북 어린이가 함께 보는 전래동화」



남북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정서를 공유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의도에서 남한과 북한에서 널리 퍼져 있는 옛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5권으로 묶었다.

손동인(전 인천교대 교수) 이준연(동화작가) 최인학(인하대 국문과) 3명이 편집위원으로 참가 공동으로 엮은 이 책은 남북 각각의 전래동화를 주제의 공통성에 따라 배열해 놓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읽는 가운데 남북의 동

질성을 체득할 수 있게 편집되었다

작품선정은 서로 이질적인 것은 가급적 배제한 가운데 남한의 전래동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60편을 골랐고, 북한의 전래동화는 일본의 학우서방이 지난 80년대초 출판한 북한의 전래동화들 가운데 49편을 선정했다.

「차돌 깨우는 호랑이」 「도둑잡는 두꺼비」 「황금덩이와 구렁이」 「당나귀 알」 「맹매이 할 멍바위」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익히 들어온 '온달이야기' '호동과 낙랑공주' '우렁각시' 등은 북한에서도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읽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금이 나오는 땃돌'(남한) '섬처녀'(북한) 두 동화는 제목만 다를 뿐 소

금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같은 주제의 동화여서 흥미롭게 비교해가며 읽는 재미가 있다.

「여태까지 출판된 전래동화집들은 북쪽의 것이 빠진 남쪽만의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의 것을 모아놓고 보니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줄거리가 흡사했다. 동화를 통해 남북이 한핏줄임을 확인해주고 싶었다」고 엮은 이들은 밝혔다.

곧이어 2차분 5권도 출판될 예정.
사계절 / A5신 / 각 230면 내외 / 전5권 15000원